

생태사회와 불교

마을만들기, 풀뿌리 지역공동체운동

마을, 내가 사는 곳 유토피아 만드는 연습

지금 서울시정의 화두, 마을  
 지금 박원순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마을', '마을만들기'가 화두이다. 지역공동체운동, 살맛나는 지역만들기, 살맛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 등 모두 같은 말이다. 또 이에 따라 도시및발운등도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불광동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8월 30일까지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3명만 모여서 무엇인가 활동 하는 모임을 만들면 최소 100여만원 이상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마을살이' 등 사업은 이미 지방 대부분 도시들이 서울시의 지역공동체활동을 복제하거나 따라하고 있다. 부산, 수원, 광주, 청주, 대전을 물론이거니와 장수, 진안, 서천 등 도시와 시골에 그야말로 '트렌드'이자 '패션'처럼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리 '마을만들기', '풀뿌리 지역공동체'에 열광 하고 있는가. 서울에 마을이 있기는 한 것일까? 도대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울은 1960~70년대 수백년 내려왔던 농촌공동체가 개발과 산업화로 파괴, 해체되면서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도시로 몰려와 주변의 판자촌을 형성했다. 서로의 존하고 협력하며 내것 내것없이 대가족을 이루며 살던 농촌을 떠나 아무도 반겨줄이 없는 도시로 몰려온 것이다. 도심주변에 형성된 판자촌과 빈민가들은 그나마 농업사회의 끈끈한 공동체적 뿌리를 갖고 있었지만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뿌리마저 서서히 사라져갔다. 필자가 서울시의 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했던 2010년에는 서울시의 재개발단지가 무려 200여 곳이었다. 대부분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그것도 대형평수의 아파트이다.

주민들을 터전에서 몰아내는 재개발  
 그래서 브리핑을 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당시들이 짓는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겁니까?" 놀라운 답이 돌아왔다. "그들이 여기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 비싸게 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겠지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재개발을 원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에게 땅이나 팔고 이사를 가란다. 더욱이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결국 더 먼 외곽으로 이주를 강제하며, 강제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은 말할수 없는 지경이다. 대형 평수를 많이 지어 돈을 버는 개발업자들에게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실속이 없다. 결국 소수의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대박이지만 원주민 재입주율이 20%밖에 안되는 재개발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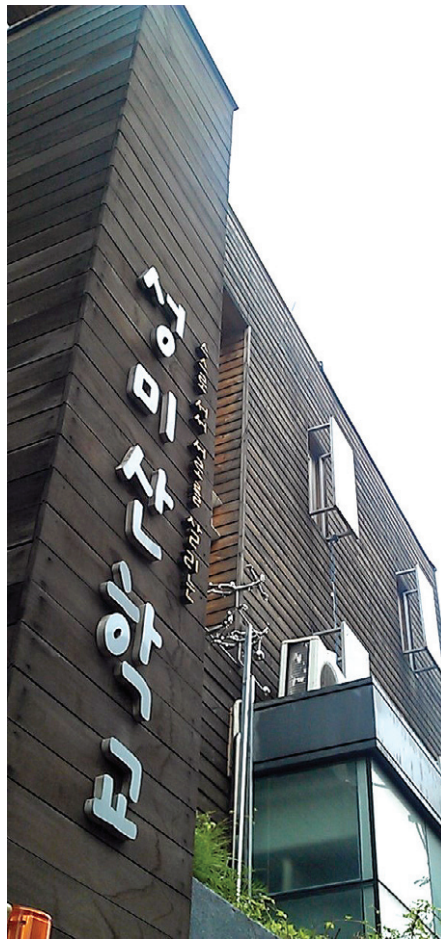
부분의 주민들은 쪽박을 차는 일이다. 2008년 전세계의 금융위기이후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3년전에 지어놓은 그 많은 대형평수의 뉴타운 아파트들은 지금은 분양이 안되어 텅텅비어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세훈시장의 뉴타운개발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오세훈시장시절 추진되던 휴먼타운 7곳 등 총 17곳에 대해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대신 주민 주도로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인 마을 만들기 뉴타운·재개발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업인구 도시로 몰려 판자촌 형성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체 사라져  
 재개발 대안...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은 '불박이정착' 의식 갖게해

'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마을이란 단순히 건물의 집합, 주택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장소성과 역사성이 축적된 공간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들간의 협동과 의존관계가 높아 서로 돕고 끈끈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을 말한다. 농촌공동체를 버리고 몰려온 팍팍한 서울살이, 비인간적인 도시를 사람의 정이 흐르는 마을로 만들려는 많은 원력행자들에게 의해 수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마포의 성미산공동체와 은평구 대조동 갈곡리, 강북구의 녹색마을, 부산의 반송동의 희망채상, 연제공동체등, 그리고 농촌의 경우 우만도 괴산, 장소, 진안, 무주, 안성 등 곳곳에서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곳은 마포구 흥대 맞은 편인 '성미산공동체'이다. 이곳은 약 20여년전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아이들이 뛰어놀던 야트막한 뒷동산 성미산이 개발의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성미산치키키'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 운동은 크게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지역 마을 대안학교 성미산학교(사진 왼쪽)와 성미산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운동회(사진 오른쪽). 서울 마포에 자리한 성미산 마을은 한국의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작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친환경격거리 공동구매를 위해 마포두레생협을 만든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고 탄력에 힘입어 산악회, 농사모임, 각종 공부모임, 노래모임, 밴드, 연주모임, 극단, 사진동, 풍물패 등 수십개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구성되면서 성미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성미산 마을 축제, 숲속 음악회, 마을운동회를 개최하여 재미있고 자발적인 마을의 축제가 만들어진다. 마을에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후 교육공동체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초중고 12년제 대안학교로 성미산학교를 만들기 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몇몇 마을에서 뜻에 맞는 사람끼리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9가구와 10가구가 공동으로 같이 사는 공동주택(Co-housing)이 2개가 만들어졌고, 성미산 마을극장까지 만들어졌다.

또한 수십개의 마을기업이 만들어졌다. 마을카페인 '작은나무', 동네식당인 '성미산밥상', '반찬가게', '성미산 공방', '비누두레', 옷을 만드는 '한뎀두레',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두레'와 '도서관점 서점'도 있다. 그야말로 이곳에서는 운동대 모두가 다 친한 사람들이 어느집에 들어가서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있고 놀러다니고 마실을 다닐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운동이 이



지역 마을 대안학교 성미산학교(사진 왼쪽)와 성미산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운동회(사진 오른쪽). 서울 마포에 자리한 성미산 마을은 한국의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미 서울만해도 수십군데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마을운동에 오랫동안 주목해왔고 이미 3-4권의 마을운동관련 책을 써내기도 했던 박원순시장은 뉴타운으로 파괴된 지역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정이 흐르는 '마을만들기'로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향을 만드는 일 '마을만들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애창되는 우리 동요에서 '고향'은 사람들의 정서의 시원이자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귀의처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나마 고향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이라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도시에서 살아온 아이들에게 '나의 살던 고향은 00병원 000호실' 일뿐이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매꾸기 뒤늦게 이사를 다녔던 아이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은 없다. 고향이 없는 아이들, 그리움이 없는 세대는 불행하다. 마을만들기는 고향을 만드는 일이다. 고향은 주택과 건물들이 모인곳이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놀던 수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다. 거리, 골목, 전봇대, 집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추억이 아로새겨진 곳이다. 이것을 '장소성'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이웃간의 대화가 있고 모임이 있고 협동이 있고 지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독거노인들이 홀로 외로움을 리었고, 읍수한 거리에 비행청소년들이 있을 수 없

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주거환경이 생길 리없고, 동네뒷산이 함부로 파헤쳐질리 없고, 개천과 시내가 쓰레기로 더럽혀질리 없다. 아이들에게는 마음놓고 뛰어놀 곳이 많은 곳이다. 돈은 적게 벌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편히 살수있는 행복한 마을, 이사가고 싶지 않은 정든 마을이다. 이런 마을은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꾸어야 하고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인간과 인간의 정이 살아있고, 거리, 골목이 살아있으며 환경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떠돌이의 삶에서 불박이의 삶으로

과거 우리 선조들은 한곳에서 대를 이어 가문을 일구며 살아왔다. 불박이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한 곳에서 10년 이상 머물며 사는 사람이 드물다. 이 아파트에서 저아파트로 강남에서 분당으로 강북에서 일산으로 파주 신도시로, 더 넓은 곳 더 세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이미 집은 내가 거주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다. 그래서 철새처럼 이동한다. 떠돌이들에게 이웃과 사귀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집값의 개편이 오묘되든 쓰레기로 더럽혀지든 자신이 알바가 아니다. 골목이 우범지대가 되든, 교통사고가 자주나는 자신이 관심을 돌리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곧 더 좋은 아파트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불박이의식은 다르다. 그곳에서 뼈를 묻고 살려는 사람에게 이웃은 함께 협력해서 살아야 할 대상이며, 자연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거주환경은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만들기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 금고등의 경제적 활동이 함께 발전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생태적인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불박이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이나 생태환경도 이러한 불박이 의식, 정주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 사찰은 바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구심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운동을 자극하고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지역의 문화적 활력과 경제적 공동체의 상징적인 중심역할이 되어야 한다.



유정길 (예코부터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동의보향 덩 증정행사**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덩을 증정해 드립니다.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소포장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침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자연에서 얻은 동의보향의 아름다운 향기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달래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향은 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성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조원 수물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혜숙)

**藝園®**  
<http://www.예원블.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남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장란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 (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쥬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